

유아 부모의 가족 상호작용, 양육분담, 양육스트레스 간 관계의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양진희(梁賑姬)*

김영철(金映鐵)**

논문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족 상호작용, 양육분담, 양육스트레스 간 관계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아동패널 6차년도(2013년) 1,662명의 자료를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 상호작용이 양육분담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자기효과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상대방효과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 상호작용은 양육스트레스에 대체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기효과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의 양육분담은 양육스트레스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아버지는 상대방효과에서, 어머니는 자기효과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족 상호작용과 양육분담 및 양육스트레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부부가 서로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가족 상호작용, 양육분담, 양육스트레스,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

* 한국교통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부교수

** 충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I. 서론

가족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상호 관계가 얽힌 복합적인 총체이며, 동시에 어느 한 부분에서의 변화는 또 다른 부분에서의 변화를 야기하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조직이다(Watzlawick, Weekland, & Fisch, 1974). 가족 구성원들은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상호관계에서 부딪히는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타협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Goldenberg & Goldenberg, 2000). 이러한 점에서 가정 안에서의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은 인간 발달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초기의 사회화의 근원이 되며, 특히 인간의 발달과정 중 결정적 시기에 있는 유아들에게 있어 그 의미와 중요성은 어느 시기보다 크다.

가족 상호작용에 대한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Moos(1974)는 가족 상호작용 양식을 응집성(cohesion), 표현성(expressiveness), 갈등(conflict) 등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가족 상호간의 사소통의 특징과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지지와 지원 및 관여의 정도, 감정의 표현 및 자율성의 정도, 분노, 공격, 갈등 등과 같은 정서적 상호작용의 정도에 따라 가족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Olson 등(1983)은 가족 상호작용 양식 중 가족 응집성을 가족 구성원 사이의 정서적 유대라고 정의하고, 가족 적응성은 가족 구성원들이 발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에 반응할 때 권력구조, 역할관계, 관계적 규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족체계의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가족 적응성은 가족 구성원들의 의견을 주장하는 정도, 양육태도, 가족의 협상유형, 가족 간의 역할관계, 가족 규칙의 융통성 및 지도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Olson, Russel, & Sprenkle, 1983). 이들은 가족 응집성의 기준에 따라 균형가족, 중간가족, 극단가족 등으로 분류하거나, FACES III(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III)의 점수에 따라 균형가족, 약간 균형적인 가족, 중간가족, 극단가족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집단 간 분류는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 및 기능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이며 구성원 간 상호작용의 정도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가족 상호작용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가족 상호작용은 유아에게 또래와의 성공적인 상호작용을 발달시킬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을 익히고, 연습하고, 정교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Islay, O'Neil, Calfelter, & Parke, 1999), 또래 유능성에 긍정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Dadds, 1987). 가족 상호작용이 높은 아동들은 친구관계 및 학교 적응성 또한 높으며(김정화, 2005; 박향숙, 2005), 낮은 아동들은 적대감이나 주의산만 등과 같은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김선숙, 2005). 또한 가족 상호작용은 가족 구성원들의 사회적 행동 변인에 상호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Hannum & Mayer, 1984),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방식이 결혼한 핵가족에서 전수되는 등(Bowen, 1972; Kerr & Bowen, 1988),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경험한 정서적 친밀감 및 유대감은 세대간에 영향력을 갖는다(김순기, 유영주, 2001; 남순현, 한성열, 2001; 차정화, 전영주, 2002; 하상희, 2008; 하상희, 정혜정, 2008; Anderson & Sabatelli,

1992; Bowen, 1972; Benson, Larson, Wilson, & Demo, 1993). 이와 관련하여, 가족 상호작용과 부부 정서적 특성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Lavee와 Olson(1991)은 가족 상호작용에서 응집성이 높은 가족의 배우자들은 상호간에 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응집성이 높을수록 배우자들은 상호 스트레스에 대한 긴장이 적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Bartle-Haring과 Sabatelli(1998)는 원가족에서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과 가정의 정서적 분위기는 배우자 상호간에 신뢰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가족 상호작용이 자녀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의 만족도 및 스트레스와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함축한다.

한편, 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양육 및 역할 수행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강학중, 유계숙, 2007; 김낙홍, 2010; 김영철, 2014; 김영철, 양진희, 2014a; 민현숙, 정영숙, 2005; 양정화, 2002; 이정순, 2003; 이정순, 조희숙, 2005; 최효식, 연은모, 권수진, 홍윤정, 2013; 한유미, 오경숙, 2008; 한유진, 김선애, 2007)은 자녀 양육과정에서 부부 사이에 적절한 양육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부모로써 다양한 역할을 분담하고 양육에 적극적이고 협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김영철, 2014)고 강조하고 있다.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양육참여(김보람, 2013; 우수경, 2005; 장석경, 이지현, 2008; 황영미, 문혁준, 2006) 및 양육분담은 자녀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어머니의 양육부담(이정순, 2003; 한유미, 오경숙, 2008)과 양육스트레스(강학중, 유계숙, 2007; 박성옥, 강영자, 1997) 등 자녀 양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문제들을 감소시키는(김영철, 양진희, 2014b; 이슬기, 2014) 중요한 변인이다. 그러나 자녀 양육분담에서 부부 사이의 양육내용은 질적인 차이를 보인다(김미숙, 문혁준, 2005; 김영철, 2014; Coleman, 1988; Harpster, 1998; Walker & McGraw, 2000). 일반적으로 부부의 평등한 양육참여 및 분담은 부부사이의 유대와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이러한 역할의 차이에서도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왔으나,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직결되는 양육분담과 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개인 및 가족 구성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이 변인들 간의 관계 및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아보다 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강하게 나타나는 양육스트레스(이주옥, 2008; Seginer, Vermulst, & Geris, 2002)는 자녀 양육에서의 부모 역할 수행(Deater-Deckard, 2006) 및 역할 회피(Jarvis & Creasey, 1991)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양육분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부 사이의 갈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양육스트레스의 원인은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양육자를 둘러싼 인적 구성원들의 양육행동 및 양육분담 등과 관련이 높다. 즉, 양육스트레스는 과도할 경우 신경증적이고 역기능적인 양육행동(김중환, 2012; 손영지, 박성연, 2011; 이주옥, 2008; 양진희, 김영철, 2016; Belsky, Woodworth, & Crnic, 1996)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비일관된 양육태도(김미숙, 문혁준, 2005; Zahn-Waxler, Iannotti, Cummings, & Denham,

1990) 및 자녀의 사회적 능력(이인학, 최성열, 송희원, 2013; 정미라, 강수경, 최은지, 2014)과 문제행동(방소영, 최선희, 이수현, 황혜정, 2013; 정윤주, 김윤주, 2014; Crnic, Gaze, & Hoffamn, 2005)등 부모와 자녀의 심리적 변인에 영향을 미친다.

이상의 연구들은 유아 부모의 가족 상호작용은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세대 간에 지속적으로 전수될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은 물론 배우자의 양육분담 및 양육스트레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주 5일 수업제에 대한 부모인식 및 자녀양육분담과 양육스트레스의 관련성을 연구한 한유미와 오경숙(2008)은 성역할의 변화와 맞벌이 가정이 증가한 현대사회에서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불평등은 가족의 갈등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양육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토요일휴업일에 아버지의 양육분담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이는 예전에 비하여 아버지도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상당히 느끼고 있고 이에 따라 양육스트레스도 함께 증가한다는 연구(선미정, 1995)를 지지한다. 즉, 아버지의 양육분담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는 기능을 하며(오은영, 2001), 상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 상호작용 빈도와 질을 결정하는데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손유기, 1998; 한유미, 오경숙, 2008)는 점을 함축한다. 이상을 통해서, 부모의 양육분담은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성이 높으며, 이러한 특성들은 가족 구성원간의 결속 및 유대와 관련 있는 가족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변인들은 상호 역동적이고 순환적인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부모의 가족 상호작용과 양육분담 및 양육스트레스 사이의 구조적 관계의 이론적 모형이 성립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들 변인간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연구는 의의가 확보된다. 그러나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이들 변인간의 관계를 아버지와 어머니의 특성들 간의 개별적인 분석에 국한하고 있으며, 부부 상호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탐색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부모 간의 상호 영향력을 분석한 몇몇 연구들(연은모, 윤혜옥, 최효식, 2016; 연은모, 최효식, 2015; 이인정, 김미영, 2014; 이주리, 2012; 최효식, 연은모, 2014)은 부부와 같이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는 커플 자료를 독립적으로 분석할 경우 커플 상호간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APIM)을 적용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Cook & Kenny, 2005; Kenney, Kashy, & Cook, 2006)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분석하지 못했던 커플 자료의 특징을 고려할 수 있는 APIM을 활용함으로써 아버지와 어머니를 독립적인 자료가 아닌 한 단위로 다루어 유아 부모의 가족 상호작용과 양육분담 및 양육스트레스 간 관계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이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상담 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의 목적에

기초하여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가족 상호작용이 양육분담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어떠한가?

둘째, 부모의 가족 상호작용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어떠한가?

셋째, 부모의 양육분담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분석대상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집한 한국아동패널연구(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의 6차년도(2013년) 2,150가구의 조사대상 중 최종 선택된 1,662가구의 아버지와 어머니이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선정을 위하여 관찰 변인들의 결측치가 있는 경우 이를 완전제거(listwise) 방식으로 제거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인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만 38.71세($SD=3.81$), 어머니 연령은 만 36.29세($SD=3.56$), 현 결혼 상태 유지 기간(년)은 8.91년($SD=2.96$), 자녀의 월령은 62.63개월($SD=1.29$), 그리고 자녀의 성별은 남아 576명(51.8%), 여아 536명(48.2%)이었다. 이 연구에서 6차년도 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한국아동패널에서 공개한 자료 중 6차년도 자료가 2016년 현재 가장 최근자료이기 때문이다.

2. 측정 도구

1) 가족 상호작용 검사 척도

이 연구에서는 유아 부모의 가족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국아동패널에서 David Olson(2010)의 FACES IV Manual(Family Ad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IV)을 변안하여 사용한 가족 상호작용 척도 14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가족리더십, 역할관계와 관계에 따른 역할들 속의 변화성을 묻는 응집성의 균형 영역과 가족원들 간의 감정적 결합을 묻는 유연성의 균형 영역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어진다. 각 문항은 '우리 가족은 서로의 생활에 관심을 갖는다.', '우리 가족은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 등 가족 구성원의 건강한 응집성과 유연성 정도를 묻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문항의 점수는 각 문항의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 5점에서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이 배점되는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5점에서 최고 70점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한 응집성, 유연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가족의 응집성과 유연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가족 상호작용 검사 척도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92이었다. 이 연구의 대상인 아버지의 가족 상호작용 평균은 54.25($SD=7.12$), 어머니의 평균은 52.85($SD=7.82$)이었다.

2) 양육분담 검사 척도

이 연구에서는 유아 부모의 양육분담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국아동패널에서 NICHD(2007)의 SECCYD(Study of Early Child Care and Youth Development)를 번역하여 사용한 양육분담(My time spent as a parent: Child care activities) 척도 16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아이를 돌보기 위해 밤에 일어난다.’, ‘아이를 어린이집, 유치원, 보모에게 데려다 준다.’ 등을 묻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문항의 점수는 각 문항의 질문에 대해 ‘배우자가 함’에 1점, ‘대부분 배우자가 함’에 2점, ‘똑 같이 함’에 3점, ‘대부분 내가 함’에 4점, 그리고 ‘내가 함’에 5점이 배점되는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16점에서부터 80점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배우자보다 양육활동에 더 많이 관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배우자가 양육활동에 더 많이 관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양육분담 검사 척도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아버지는 .92, 어머니는 .91이었다. 이 연구의 대상인 아버지의 양육분담 평균은 33.99($SD=8.96$), 어머니의 평균은 64.73($SD=8.67$)이었다.

3) 양육스트레스 검사 척도

이 연구에서는 유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한국아동패널에서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중 일부를 발췌하여 사용한 양육스트레스 척도 11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아이가 태어난 후에 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등을 묻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문항의 점수는 각 문항의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 5점에서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이 배점되는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11점에서 최고 55점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양육스트레스 검사 척도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87이었다. 이 연구의 대상인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의 평균은 26.82($SD=6.61$), 어머니의 평균은 29.15($SD=6.82$)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1.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족 상호작용, 양육분담, 양육스트레스 각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변인의 경향성과 정상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 및 상관관계를 실시하여 주요 변인 간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하였으며,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Pearson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세 변인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PIM)을 기반으로 각 연구변인 간 직접 경로에 대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모형 분석은 편리성이 높고, 추정치 간의 차이 비교가 용이하며(Cook & Kenny, 2005; Kenny, Kashy, & Cook, 2006), APIM은 한 쌍의 변인이 자기 혹은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때 주로 사용된다(연은모, 최효식, 2015). 이 모형을 사용하면 자기 자신에게 미치는 자기효과(actor effect)와 자신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효과를 의미하는 상대방효과(partner effect)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의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가의 각각의 행동이 배우자의 어떠한 반응을 예측하는가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Kenny, 1996).

또한 이 연구에서는 구조모형분석 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을 활용하여 계수를 추정하였으며, 각 모형의 적합도 평가는 TLI, CFI, RMSEA 지수를 활용하였다. 적합도 지수는 적합도 평가 기준(배병렬, 2007, 2009; Browne & Cudeck, 1993; Hu & Bentler, 1999)에 따라 TLI, CFI는 .90 이상, RMSEA는 .08 이하이면 양호한 적합도로 해석하였다. 또한 각 측정모형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측정변인이 많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형의 기각확률이 증가할 수 있는 오류를 제거하기 위하여(Russell, Kahn, Spoth, & Altmaier, 1998), 가족 상호작용, 양육분담, 양육스트레스의 문항들은 문항 묶기(item parceling)를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측정모형 검증

이 연구에서는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기 이전에, 22개의 측정변인이 6개의 잠재변인을 잘 구인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표 1과 같이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측정변인의 왜도는 -.18에서 .94사이였고, 첨도는 -.11에서 2.95사이로 모든 변인의 왜도의 절대값이 2를 넘지 않고, 첨도의 절대값이 4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값이 기준값

(Hong, Malik, & Lee, 2003; Kline, 2005; West, Finch, & Curran, 1995)의 범위 내로 나타나 정규 분포성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과 같이, 가족 상호작용은 대체로 양육분담 및 양육스트레스와 부적인 상관관계에 있으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우에서 변인 간에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에서 변인별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분석하였다.

<표 1> 측정변인 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	1																						
2	.75**	1																					
3	.69**	.67**	1																				
4	.66**	.77**	.68**	1																			
5	.13**	.13**	.10**	.19**	1																		
6	.16**	.18**	.15**	.27**	.65**	1																	
7	.17**	.17**	.16**	.27**	.62**	.74**	1																
8	.16**	.17**	.16**	.27**	.62**	.77**	.73**	1															
9	-.38**	-.34**	-.33**	-.31**	.04	-.02**	-.03	-.04	1														
10	-.45**	-.39**	-.38**	-.37**	-.01	-.08**	.06**	-.08**	.65**	1													
11	-.30**	-.29**	-.31**	-.30**	.00	-.06**	-.05	-.05	.56**	.64**	1												
12	.53**	.48**	.45**	.43**	.14**	.16**	.18**	.16**	-.25**	-.27**	-.19**	1											
13	.49**	.52**	.42**	.47**	.17**	.18**	.18**	.18**	-.24**	-.27**	-.20**	.78**	1										
14	.41**	.40**	.47**	.40**	.13**	.18**	.18**	.18**	-.22**	-.23**	-.18**	.72**	.68**	1									
15	.42**	.44**	.43**	.52**	.23**	.26**	.24**	.25**	-.18**	-.24**	-.20**	.67**	.77**	.68**	1								
16	-.11**	-.12**	-.12**	-.19**	-.61**	-.34**	-.37**	-.33**	.03	.04	.07**	-.19**	-.20**	-.19**	-.28**	1							
17	-.15**	-.19**	-.17**	-.27**	-.39**	-.44**	-.37**	-.36**	.09**	.13**	.14**	-.22**	-.26**	-.26**	-.38**	.70**	1						
18	-.15**	-.16**	-.15**	-.25**	-.35**	-.36**	-.48**	-.35**	.05	.08**	.10**	-.24**	-.23**	-.26**	-.34**	.61**	.74**	1					
19	-.11**	-.13**	-.16**	-.23**	-.34**	-.34**	-.34**	-.45**	.06**	.08**	.08**	-.19**	-.20**	-.24**	-.31**	.61**	.72**	.68**	1				
20	-.21**	-.20**	-.23**	-.21**	-.01**	-.04**	-.05**	-.04**	.36**	.28**	.30**	-.32**	-.29**	-.34**	-.25**	.06**	.09**	.10**	.09**	1			
21	-.25**	-.24**	-.25**	-.23**	-.05**	-.06**	-.06**	-.09**	.31**	.37**	.32**	-.37**	-.32**	-.35**	-.28**	.08**	.10**	.10**	.06**	.66**	1		
22	-.18**	-.17**	-.21**	-.20**	-.03**	-.04**	-.08**	-.08**	.27**	.29**	.39**	-.32**	-.28**	-.35**	-.29**	.08**	.12**	.12**	.09**	.58**	.63**	1	
M	4.11	3.98	3.75	3.69	2.31	2.07	2.09	2.12	2.34	2.18	2.77	4.00	3.93	3.62	3.57	3.88	4.06	4.09	4.12	2.58	2.32	3.03	
SD	.59	.55	.61	.57	.71	.59	.62	.67	.75	.66	.69	.64	.60	.68	.62	.69	.60	.60	.59	.79	.67	.70	
왜도	-.81	-.61	-.44	-.18	.71	.94	.69	.79	.26	.32	-.23	-.98	-.98	-.62	-.41	-.49	-.47	-.37	-.50	.27	.27	-.23	
첨도	2.35	1.78	1.01	.74	1.25	2.95	2.22	1.99	-.18	.03	.04	2.61	2.69	1.03	.93	.29	.48	.19	.38	-.11	.11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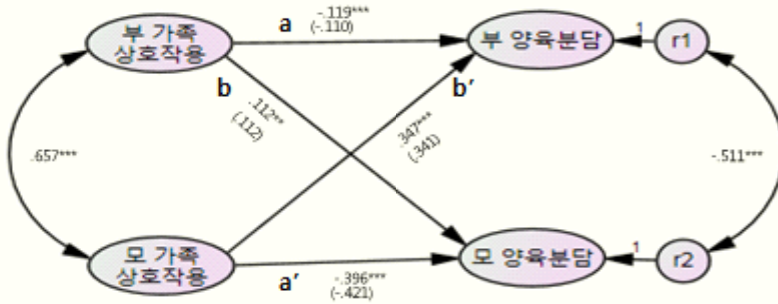
* $p < .05$, ** $p < .01$

1: 부 가족 상호작용(1), 2: 부 가족 상호작용(2), 3: 부 가족 상호작용(3), 4: 부 가족 상호작용(4), 5: 부 양육분담(1), 6:부 양육분담(2), 7: 부 양육분담(3), 8: 부 양육분담(4), 9: 부 양육스트레스(1), 10: 부 양육스트레스(2), 11: 부 양육스트레스(3), 12: 모 가족 상호작용(1), 13: 모 가족 상호작용(2), 14: 모 가족 상호작용(3), 15: 모 가족 상호작용(4), 16: 모 양육분담(1), 17: 모 양육분담(2), 18: 모 양육분담(3), 19: 모 양육분담(4), 20: 모 양육스트레스(1), 21: 모 양육스트레스(2), 22: 모 양육스트레스(3)

2. 가족 상호작용이 양육분담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가족 상호작용이 양육분담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chi^2(df=99)=1597.43$, $p < .001$, TLI=.88, CFI=.91, RMSEA=.08로 나타나 모형이 분석 자료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과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족 상호작용이 양육분담에 미치는 자기효과는 각각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상대방효과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모두 유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 가족 상호작용이 양육분담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¹⁾

가족 상호작용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4번의 등가제약 모형을 다음 표 2와 같이 설정하였다. 등가제약 모형은 (1) 가족 상호작용이 양육분담에 미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기효과 비교($a=a'$), (2) 가족 상호작용이 양육분담에 미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대방효과 비교($b=b'$), (3) 아버지의 양육분담에 미치는 가족 상호작용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비교($a=b'$), (4) 어머니의 양육분담에 미치는 가족 상호작용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비교($a'=b$)이다. 등가제약모형의 해석은 χ^2 차이검증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등가제약 모형과 기본모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면 효과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이론적 근거(김시연, 서영석, 2010)와 선행연구들(연은모, 최효식, 2015; 최효식, 윤해옥, 연은모, 2016)에 기초하였다.

χ^2 차이검증을 통해 각 등가제약 모형과 기본모형 간에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첫째, 가족 상호작용이 양육분담에 미치는 아버지($\beta=-.11$)와 어머니($\beta=-.42$)의 자기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 상호작용이 양육분담에 미치는 영향은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가족 상호작용이 양육분담에 미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대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가족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분담은 증가하고 어머니의 가족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분담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버지의 양육분담에 미치는 가족 상호작용의 자기효과($\beta=-.11$)와 상대방효과($\beta=.34$)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경우 자신이 갖고 있는 가족 상호작용보다는 배우자인 어머니의 가족 상호작용이 자신의 양육분담에 더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넷째, 어머니의 양육분담에 미치

1) () 값은 표준화 계수임. ** $p < .01$, *** $p < .001$

는 가족 상호작용의 자기효과($\beta=-.42$)와 상대방효과($\beta=.11$)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경우 아버지의 가족 상호작용보다는 자신의 가족 상호작용이 자신의 양육분담에 더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이를 종합하면, 자신의 가족 상호작용이 양육분담에 미치는 영향은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크게 나타나고, 아버지의 양육분담은 자신보다는 배우자의 가족 상호작용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반면, 어머니의 양육분담은 배우자보다는 자신의 가족 상호작용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기본모형과 등가제약모형 간 χ^2 차이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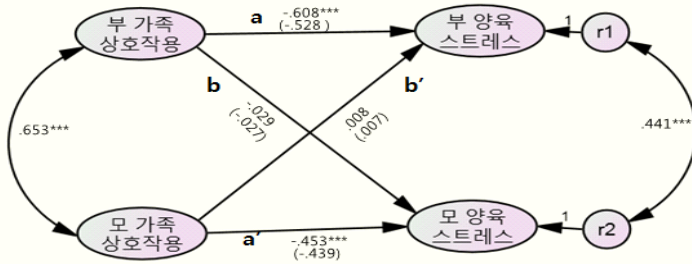
	χ^2	df	TLI	CFI	RMSEA	$\Delta \chi^2$
기본모형	1597.43***	99	.88	.91	.08	-
등가제약 1 ($a=a'$)	1659.47***	100	.87	.91	.08	$\chi^2(1)=62.04$ ***
등가제약 2 ($b=b'$)	1622.74***	100	.88	.91	.08	$\chi^2(1)=25.31$ ***
등가제약 3 ($a=b'$)	1723.76***	100	.87	.90	.08	$\chi^2(1)=126.33$ ***
등가제약 4 ($a' =b$)	1657.63***	100	.87	.91	.08	$\chi^2(2)=60.20$ ***

* $p < .05$, ** $p < .01$, *** $p < .001$

3. 가족 상호작용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가족 상호작용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그림 2와 같이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chi^2(df=71)=863.22$, $p < .001$, TLI=.92, CFI=.94, RMSEA=.07로 나타나 모형이 분석 자료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2와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족 상호작용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자기효과는 부적 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대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족 상호작용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4번의 등가제약 모형을 다음 표 3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2] 가족 상호작용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²⁾

그 결과 첫째, 가족 상호작용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아버지($\beta = -.53$)와 어머니($\beta = -.44$)의 자기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덜 받는 경향성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가족 상호작용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대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의 가족 상호작용이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부부 간에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셋째,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가족 상호작용의 자기효과($\beta = .53$)와 상대방효과($\beta = .01$)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경우 어머니가 갖고 있는 가족 상호작용보다는 자신의 가족 상호작용이 자신의 양육스트레스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3> 기본모형과 등가제약모형 간 χ^2 차이검증

	χ^2	df	TLI	CFI	RMSEA	$\Delta \chi^2$
기본모형	863.22***	71	.92	.94	.07	-
등가제약 1 (a=a')	868.56***	72	.92	.94	.07	$\chi^2(1) = .51^*$
등가제약 2 (b=b')	863.55***	72	.92	.94	.07	$\chi^2(1) = .33$
등가제약 3 (a=b')	926.92***	72	.93	.94	.07	$\chi^2(1) = 63.71***$
등가제약 4 (a' = b)	896.63**	72	.92	.94	.07	$\chi^2(2) = 33.41***$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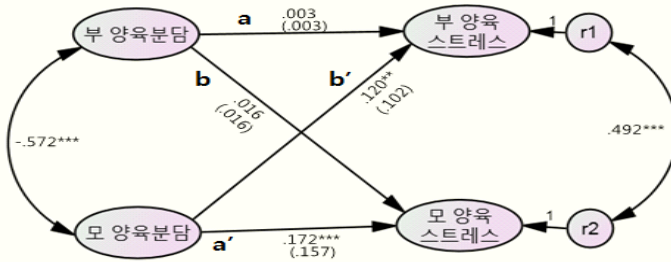
넷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가족 상호작용의 자기효과($\beta = -.44$)와 상대방효과(β

2) () 값은 표준화 계수임. ** $p < .01$, *** $p < .001$

=.03)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경우에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가족 상호작용보다는 자신의 가족 상호작용이 자신의 양육스트레스에 더 큰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이를 종합하면, 자신의 가족 상호작용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차이가 없으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양육스트레스는 배우자보다는 자신의 가족 상호작용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4. 양육분담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양육분담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그림 3과 같이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chi^2(df=71)=1020.56, p<.001, TLI=.87, CFI=.91, RMSEA=.07$ 로 나타나 모형이 분석 자료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3] 양육분담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³⁾

그림 3과 같이, 아버지의 양육분담은 자신과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양육분담은 자신과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육분담은 전반적으로 양육스트레스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육분담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며, 양육분담이 줄어들수록 양육스트레스도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분담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4변의 등가제약 모형을 다음 표 4와 같이 설정하였다. 그 결과 첫째, 양육분담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아버지($\beta=.00$)와 어머니($\beta=.16$)의 자기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육분담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양육분담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대방 효과는 통계적으

3) () 값은 표준화 계수임. ** $p < .01$, *** $p < .001$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양육분담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의 양육분담이 자신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부부 간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양육분담의 자기효과($\beta=.00$)와 상대방효과($\beta=.10$)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경우 자신의 양육분담보다는 배우자의 양육분담이 자신의 양육스트레스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양육분담의 자기효과($\beta=.16$)와 상대방효과($\beta=.02$)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경우와 달리, 배우자의 양육분담보다는 자신의 양육분담이 자신의 양육스트레스에 더 큰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이를 종합하면, 자신의 양육분담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고,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자신보다는 배우자의 양육분담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반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배우자의 양육분담보다는 자신의 양육분담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기본모형과 등가제약모형 간 χ^2 차이검증

	χ^2	df	TLI	CFI	RMSEA	$\Delta \chi^2$
기본모형	1020.56***	71	.87	.91	.07	-
등가제약 1 (a=a')	1031.77***	72	.87	.91	.07	$\chi^2(1)=11.20^{**}$
등가제약 2 (b=b')	1024.62***	72	.88	.91	.07	$\chi^2(1)=4.05^*$
등가제약 3 (a=b')	1030.42***	72	.87	.91	.07	$\chi^2(1)=9.86^{**}$
등가제약 4 (a'=b)	1041.39***	72	.87	.91	.07	$\chi^2(2)=20.83^{***}$

* $p < .05$, ** $p < .01$,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유아 부모의 가족 상호작용과 양육분담 및 양육스트레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을 활용하여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서 유아 부모의 가족 상호작용과 양육분담 및 자녀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부부의 개인 내 차원과 개인 간 차원의 특징을 분석하고, 부부 사이에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현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가족 상호작용이 양육분담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상대방효과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효과의 크기는 자기효과가 상대방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배우자의 가족 상호작용보다는 자신의 가족 상호작용이 자신의 양육분담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가족 상호작용이 양육분담에 미치는 영향은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부모 자신의 가족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자신의 양육분담은 줄어드는 반면, 배우자의 양육분담은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결과는 가족 상호작용이 높을 경우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과 친밀감이 높다는 연구(김순기, 유영주, 2001; 남순현, 한성열, 2001; 차정화, 전영주, 2002; Anderson & Sabatelli, 1992; Bowen, 1972; Benson, Larson, Wilson, & Demo, 1993), 또는 가족 상호작용이 높은 가족의 배우자들은 상호간에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Lavee & Olson, 1991) 등 가족 상호작용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깊이 있게 비교·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함축한다. 특히 이 연구결과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족 상호작용 간에는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반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분담 간에는 부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자기-상대방효과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은 자신의 가족 상호작용이 높을 경우 자신의 양육분담은 줄어드는 반면, 자신의 가족 상호작용이 높을 경우 상대적으로 배우자의 양육분담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분담은 대체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부부 사이의 역할분담 및 역할 수행과 관련이 높으며, 이러한 역할수행이 높아질수록 부모 사이의 양육분담은 줄어들고 더불어 부부 간의 만족도 또한 높아진다는 일반적인 연구결과(김경신, 1996; 김종한, 2012; 이미숙, 1996; 이슬기, 2014; 이인정, 김미영, 2014; 조희금, 1999; 한유진, 김선애, 2007)와 다른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분석되고 해석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단일 대상으로 하여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한 선행연구와 부부를 커플로 하여 자기-상대방효과를 분석한 결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유아 부모와 같이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는 커플 자료를 독립적으로 분석할 경우 커플 상호간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Cook & Kenny, 2005; Kenny, Kashy, & Cook, 2006)는 점에서,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PIM)을 적용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이 연구는 가족 상호작용이 양육분담에 미치는 자기-상대방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의 부재로 인하여, 비교 분석하여 논의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구체적인 분석을 위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족 상호작용과 양육분담 간의 상대방효과에 대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족 상호작용이 높은 부모들은 그렇지 않는 부모들에 비해 자녀에게 애정적이고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박은정, 2000), 가족 상호작용이 긍정적일수록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의 발생빈도가 높아지며, 이는 자녀의 또래 유능성(김희

태, 이임순, 2009)뿐만 아니라, 또래 놀이 상호작용(강병재, 2010; 이수남, 2010), 사회적 힘의 영향력(강병재, 2010), 및 아동의 사회적 적응 등과 같은 자녀의 사회성 발달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강병재, 2010; 민혜영, 1998) 등을 토대로, 추후 연구를 통해 이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의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결과는, 자신의 가족 상호작용이 자신의 양육분담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은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높은 반면, 배우자의 가족 상호작용이 자신의 양육분담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은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더 높았다는 점이다. 즉,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분담은 배우자의 가족 상호작용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아버지는 어머니의 변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차후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할 후속과제는, 아버지의 가족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분담이 증가한다는 점과, 어머니의 가족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분담이 증가하는 점이다. 이는 가족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부부 사이의 균형적인 양육분담이 상승하고 자기 자신은 물론 상대방에 의해서도 정적인 영향을 받는 바람직한 모형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가족 상호작용은 대체로 양육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과가 나타난 반면, 상대방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신의 양육스트레스는 배우자에 의해 좌우되기보다는 자신의 가족 상호작용에 의해 더 많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는 가족 상호작용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 자신에게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배우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가족 상호작용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 간 자기효과 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신의 가족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자신의 양육스트레스는 줄어들었으며, 이러한 영향력은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더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한편,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족 상호작용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아버지의 가족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줄어든다거나, 어머니의 가족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배우자 상호간의 만족도 및 스트레스가 낮아진다는 주장(Bartle-Haring, 1998)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는 가족관계에서 부부갈등이 많고 부정적인 가족 상호작용은 부모 모두에게 부부갈등을 일으키며(정미경, 김영희, 2003), 가족 상호작용의 부적절성은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의 부족과 더불어 자녀의 문제행동의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숙희, 고인숙, 김미정, 2009), 대체로 가족 상호작용이 부족한 가정의 부모는 자녀와의 사회적 활동을 꺼려하는 경향도 높으며(Buehler & Gerard, 2002),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 및 태도를 유발시킨다는 연구(이수남, 2010) 등을 토대로 이러한

차이를 분석하는 일도 의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대체로 가족 상호작용이 높고 가족 적응성이 높은 경우 외부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반응할 뿐만 아니라 가족 자체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으며(Olsen et al., 1983), 가족 상호작용 빈도와 질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손유기, 1998)와 같은 맥락에서 가족 상호작용이 높을 경우,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는 줄어들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설과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족 상호작용과 양육분담 간의 상대방효과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에 대해 추후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분담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아버지의 경우 상대방효과만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경우는 자기효과만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양육분담은 아버지 자신이나, 배우자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어머니의 양육분담은 어머니 자신은 물론 배우자인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사항은 아버지의 양육분담이 증가할 경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연구결과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는 기능을 한다는 연구(오은영, 2001)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즉, 아버지 자신의 양육분담이 증가한다고 하여 반드시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도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는 양육분담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연구(오경숙, 한유미, 2006)나, 아버지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책임이 높아질수록 양육스트레스도 함께 증가한다는 연구(선미정, 1995)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반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자신의 양육분담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반면,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자신의 양육분담보다는 배우자의 양육분담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양육분담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자신의 양육분담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배우자의 양육분담에 의해서는 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배우자인 아버지의 양육분담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자신의 양육분담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선행연구 및 양육스트레스는 일차적으로 부모 자신의 효능감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배우자의 부모효능감 수준에 의해서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한유미, 오경숙, 2008)와 어머니가 아버지의 양육수행을 높이 평가할수록 아버지가 평가하는 본인의 양육수행도 높ی 나타나며, 이러한 양육수행 및 분담은 양육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한유진, 김선애, 2007) 등을 비교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의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특성과 양육스트레스 및 긍정적 양육태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한 연구(최효식, 연은모, 2014)와 비교하였을 때

4차년도와 6차년도의 부모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신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신의 긍정적 태도는 낮아지는 자기효과를 보인 선행연구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부모의 심리적 특성 및 양육스트레스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의 변화를 추적하는 후속 연구 또한 요구된다 하겠다.

종합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분담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에서 모두 크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육분담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의 자기효과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상대방효과는 어머니의 양육분담이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분담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 아버지의 경우 상대방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경우 자기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버지의 양육분담보다는 어머니의 양육분담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변인을 탐색하는 데 있어, 아버지의 양육분담이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와 더불어 양육스트레스의 자기-상대방효과를 분석한 연구(서우경, 김도연, 2013; 임현주, 2013; 최효식, 연은모, 2014; Bolger & Zukeman, 1995; Hastings & Brown, 2002; Hill & Rose, 2009)와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의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는 유아 부모의 가족 상호작용, 양육분담,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분석하고 부모의 상호성이 서로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서, 부모 각각의 개별적인 영향 관계를 분석하고 선행연구에서 밝히지 못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와 달리 부모의 가족 상호작용, 양육분담,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에 대해 개인 내 효과와 개인 간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이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의 상반된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추후 보다 심층적인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첫째, 이 연구의 결과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가족 상호작용과 양육분담 및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연령층에서의 일반화의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층의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이러한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한 후속연구는 의미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이 연구에서 활용된 패널데이터가 갖는 측정 도구에 대한 대표성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의 차이를 분석할 때 이러한 점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 밝혀진 요인간의 전반적인 관계가 부모의 소득이나 맞벌이 유무, 자녀의 성별 및 자녀 수 등과 같은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인들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일반화의 가능성을 보다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넷

째, 이 연구는 6차년도 횡단자료만을 사용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해 보다 구조적이고 심리적 구인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다년간의 자료를 활용한 후속 연구 또한 의미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강란혜(2000). 아버지 역할수행의 결정요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6), 15-28.
- 강병재(2010). 가족 상호작용과 아동의 또래 상호작용 및 사회적 힘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9(4), 93-110.
- 강학중, 유계숙(2007). 맞벌이 남편의 가사 및 자녀 돌봄 분담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3), 1-28.
- 김경신(1996). 맞벌이 부부의 역할기대 및 역할갈등과 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17.
- 김기원(2009). 어머니의 직업유무 및 취업관련 특성과 양육스트레스간의 관계: 배우자 지지의 중재적 역할.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기현, 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낙홍(2010). 바람직한 아버지의 역할과 역할수행의 어려움, 사회적 지원에 대한 고찰. **미래 유아교육학회**, 18(2), 79-98.
- 김미숙, 문혁준(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8(12), 47-58.
- 김보람(2013).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김선숙(2005). 가족 응집성과 취학 전 아동의 사회·정서적 적응행동 및 행동문제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 김순기, 유영주(2001). 기혼자녀가 지각하는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자아정체감이 결혼 후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1), 43-64.
- 김시연, 서영석(2010). 스트레스, 배우자지지, 결혼만족 간 관계: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2), 189-213.
- 김영철(2014). 텔레비전 드라마 <돈의 화신>에 나타난 '아버지의 이미지'의 극복과 그 교육적 시사점. **아시아교육연구**, 15(3), 71-96.
- 김영철, 양진희(2014a). '슈퍼맨':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아버지 상(像). **아시아교육연구**, 15(4), 81-107.
- 김영철, 양진희(2014b).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아상 척도 개발. **열린유아교육연구**, 19(6), 171-193.
- 김정화(2005). 가족기능과 정서지능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저소득층 아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종한(2012). 사회적 지원, 부부갈등, 자기효능감, 양육스트레스와 영아기 어머니의 양육행동

- 간 경로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3(9), 3924-3933.
- 김희태, 이임순(2009). 가족 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과 또래 유능성.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1), 1-21.
- 남순현, 한성열(2001). 3세대 가족의 가족분화수준의 세대간 전수: 불안과 행복감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4), 625-640.
- 민현숙, 정영숙(2005). 아동기 아버지의 생활만족수준과 역할수행도. **한국영유아보육학**, 10, 281-306.
- 민혜영(1998). 가족 상호작용 유형과 유아의 기질에 따른 사회성 발달에 관한 연구. **영유아교육연구**, 2(1), 43-66.
- 박성욱, 강영자(1997). 부모역할 중요도와 수행의 어려움 및 자신감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기초과학연구논집**, 1, 197-211.
- 박은정(2000). 맞벌이 가정의 가족 상호작용과 부모의 양육태도 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박향숙(2005). 가족 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친구관계 및 학교 적응. 석사학위논문,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방소영, 최선희, 이수현, 황혜정(2013). 저소득 가정 부모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양부모 가정과 한부모 가정의 비교.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5), 15-179.
- 배병렬(2007). **AMOS 7에 의한 구조방정식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 배병렬(2009). **AMOS 17.0 구조방정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 서우경, 김도연(2013). 어머니의 불안, 양육태도, 양육태도 및 심리적 안녕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일반 아동과 장애아동 어머니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1), 121-136.
- 선미정(1995). 취학 전 자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스트레스 연구. **기전여자전문대학 논문집**, 15, 33-41.
- 손영지, 박성연(201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 성격의 중재효과. **인간발달연구**, 18(2), 125-114.
- 손유기(1998). 남편의 가정 내 역할인지와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양정화(2002). 남편의 협력과 어머니 효능감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양진희, 김영철(2016).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한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우울 간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17(2), 33-57.
- 연은모, 윤해옥, 최효식(2016). 가구 소득 수준에 따른 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부부갈등, 우울,

- 양육태도 간 관계: APIM 모형의 적용. **열린유아교육연구**, 21(2), 1-28.
- 연은모, 최효식(2015). 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정서적 자녀가치, 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도 간 관계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90, 78-108.
- 연은모, 최효식, 홍윤정, 김정아(2015). 영유아 아버지의 결혼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 양육협조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특성의 매개효과와 배우자의 취업유무의 조절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86, 51-785.
- 오경숙, 한유미(2006). 주 5일 수업제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실태, 양육분담 및 양육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44(11), 107-116.
- 오은영(2001). 취업모의 양육태도, 배우자의지지 및 직업 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 우수경(2005).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변인간의 구조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0(2), 193-211.
- 윤현숙(2007). 어머니 양육행동과 유아의 다중지능 그리고 또래놀이상호작용 간의 관계. **유아교육논집**, 11(4), 389-405.
- 이미숙(1996). 맞벌이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성역할 정체감이 가사분담과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연구논집**, 16(1), 153-173.
- 이수남(2010). 경제적 해체 가족과 일반가족의 가족 간 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자녀 양육스트레스 및 아동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 **한국교육문제연구**, 28(2), 187-214.
- 이숙희, 고인숙, 김미정(2009).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3(1), 163-183.
- 이슬기(2014). 기혼 직장여성의 성역할태도, 일 만족도, 부부갈등과 일-가정 양립 갈등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이인정, 김미영(2014).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5(3), 127-149.
- 이인학, 최성열, 송희원(201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구조적 관계. **아동교육**, 22(1), 69-81.
- 이정순(2003).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3(3), 5-19.
- 이정순, 조희숙(2005). 가족역할 및 직업역할이 유아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9(2), 43-58.
- 이주리(2012). 부모의 수용-거부가 부부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 효과 모델 (APIM)의 적용.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4), 1-11.
- 이주옥(2008).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의 비교. 영

유아교육연구, 11, 41-61.

- 임현주(2013). 경제관련 변인 및 자녀의 기본생활습관과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3(4), 197-215.**
- 장석경, 이지현(2008). 아버지의 부모효능감과 양육참여도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자기능력에 대한 지각. **열린유아교육연구, 13(2), 73-89.**
- 정미경, 김영희(2003).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 우울, 부부갈등 및 양육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부적응. **대한학정학회지, 41, 123-137.**
- 정미라, 강수경, 최은지(2014).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특성, 놀이참여도와 영아의 사회, 정서적 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18(5), 373-401.**
- 정윤주, 김윤주(2014). NLP 상담 프로그램이 유아기 및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양육태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2), 485-507.**
- 조희금(1999). 취업 기혼여성의 일-가정 갈등과 직업 및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7(2), 145-157.**
- 차정화, 전영주(2002). 이성교제커플의 원가족 건강성과 친밀감 간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1), 39-57.**
- 최항준, 조수경, 김미정(2015).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양육특성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어머니 심리특성을 매개효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20(1), 383-402.**
- 최효식, 연은모(2014). 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특성, 양육스트레스, 긍정적 양육태도 간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유아교육학논집, 18(6), 5-30.**
- 최효식, 연은모, 권수진, 홍윤정(2013).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참여, 자녀가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간의 종단적 관계분석. **육아정책연구, 7(2), 21-45.**
- 최효식, 윤해옥, 연은모(2016).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긍정적 양육태도,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 관계에 대한 단기 종단연구: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PIM)의 적용. **유아교육학논집, 20(2), 495-517.**
- 하상희(2008). 부모와 자녀세대의 원가족 건강성이 대학생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6(2), 115-132.**
- 하상희, 정혜정(2008). 원가족건강성과 자기분화의 세대간 전이. **상담학연구, 9(2), 789-806.**
- 한유미, 오경숙(2008). 부부간의 부모효능감 유형에 따른 양육분담 및 양육스트레스.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9(4), 547-558.**
- 한유미, 오경숙(2008). 부부간의 부모효능감 유형에 따른 양육분담 및 양육스트레스.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9(4), 547-558.**
- 한유진, 김선애(2007). 맞벌이 부부의 부모역할 공평성 가치관 및 아버지의 양육수행 유능감과 양육수해.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2), 37-46.**

- 한유진, 김선애(2007). 맞벌이 부부의 부모역할과 공평성 가치관 및 아버지의 양육수행유능감과 양육수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2), 37-46.
- 황영미, 문혁준(2006). 또래수용도와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대한가정학회지*, 44(2), 83-91.
- Albers, L. K., Doane, J. A., & Mitz, J. (1986). Social competence and family environment: 15-year follow-up of disturbed adolescents. *Family Process*, 25, 379-389.
- Anderson, S. A., & Sabatelli, R. M. (1992). The differentiation in the family system scales: DIF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0, 89-101.
- Bartle-Haring, S., & Sabatelli, R. (1998). An intergenerational examination of patterns of individual and family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0, 903-911.
- Belsky, J., Woodworth, S., & Crnic, K. (1996). Trouble in the second year: Three questions about family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67(2), 556-578.
- Benson, M. J., Larson, J., Wilson, S. M., & Demo, D. H. (1993). Family of origin influences on late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5, 663-672.
- Bolger, N., & Zuckerman, A. (1995). A framework for studying personality in the stress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5), 890-902.
- Bowen, M. (1972). *Family therapists in clinical therapy*. New York: Jason Aronson.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Beverly Hills, CA: Sage.
- Buehler, C., Gerad, J. M. (2002). Marital conflict, ineffective parenting, and children's and adolescents' mal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 Family*, 64(1), 15-78.
- Coleman, M. T. (1988).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Suggestions for future empirical consideration and theoretical development. *Journal of Family Issues*, 9(1), 132-148.
- Cook, J. L., & Kenny, D. A. (2005).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 model of bidirectional effects in developmental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2), 101-109.
- Crinc, K. A., Gaze, C., & Hoffman, C. (2005). Cumulative parenting stress across the preschool period: Relations to maternal parenting and child behaviour at age 5.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4(2), 117-132.
- Dadds, M. R. (1987). Family and the origins of child behavior problems. *Family Process*, 26, 341-357.
- Deater-Deckard, K. (2006). Parenting stress and child adjustment: Some old hypotheses and

- new questions.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5(3), 314-332.
- Goldenberg, I., & Goldenberg, H. (2000). *Family therapy: An overview*. Belmont, CA: Wadsworth Pub. Co.
- Hannum, J. W., & Mayer, J. M. (1984). Validation of two family assessment approach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741-748.
- Harpster, P. (1998). Why men do housework: A test of gender production and the relative resources model. *Sociological Focus*, 31(1), 45-60.
- Hastings, R. P., & Brown, T. (2002). Coping strategies and the impact of challenging behaviors on special educators' burnout. *Mental Retardation*, 40(2), 148-156.
- HICHD(2007). *Study of early child care and youth development(SECCYD) Phase II Data Collection Instruments: 54 months - First Grade*. <https://www.nichd.nih.gov>에서 2007년 1월에 인출.
- Hill, C., & Rose, J. (2009). Parenting stress in mothers of adults with an intellectual disability: Parental cognitions in relation to child characteristics and family support.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53(12), 969-980.
- Hong, S., Malik, M. L., & Lee, M.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637-645.
- Hu, L., & Bentler, P.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Islay, S. L., O'Neil, R., Clafelter, D., & Parke, P. D. (1999). Parent and child expressed affect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Modeling direct and indirect pathways. *Developmental Psychology*, 35(2), 547-560.
- Jarvis, P. A., & Creasey, G. L. (1991). Parental stress, coping, and attachment in families with an 18-month old infant. *Infant Behaviour and Development*, 14(4), 383-395.
- Kenney, D. A. (1996). Models of non-independence in dyadic research.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3(2), 279-294.
- Kenney, D. A., Kashy, D. A., & Cook, W. L. (2006). *Dyadic data analysis*. New York: Guilford Press.
- Kerr, M. E., & Bowen, M. (1988). *Family evaluation*. New York: W. W. Norton.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Lavee, Y., & Olson, D. H. (1991). Family types and response to 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3), 786-798.
- Moos, R. H. (1974). *Combined preliminary manual: Family, work, group environment scales*.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Olson, D. H. (2010). *FACES IV Manual*. Minneapolis: Life Innovations.
- Olson, D. H., Russel, C. S., & Sprenkle, D. H. (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systems: VI.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 69-83.
- Russell, D., Kahn, J., Spoth, R., & Altmaier, E.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29.
- Seginer, R., Vermulst, A., & Gerris, J. (2002). Bringing up adolescent children: A longitudinal study of parents' child-rearing stres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6(5), 410-422.
- Walker, A. J., & McGraw, L. A. (2000). Who is responsible for responsible father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563-569.
- Watzlawick, P., Weakland, J. H., & Fisch, R. (1974). *Change: Principles of problem formation and problem resolution*. New York: Norton.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 and remedies*.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Zahn-Waxler, CM Ianotti, S., Cummings, E., & Denham, S. (1990). Antecedents of problem behaviors in children of depressed mother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3), 271-291.

* 논문접수 2016년 8월 2일 / 1차 심사 2016년 9월 9일 / 게재승인 2016년 9월 21일

* 양진희: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교통대학교 국제사회대학 유아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 jinheey@ut.ac.kr

* 김영철: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 kyc@chungbuk.ac.kr

Abstract

Actor and Partner Effect of Young Children-Parents' Family Interaction, Child Care Activities, and Parenting Stress

Yang, Jin-Hee*

Kim, Young-chu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actor and partner effects of young children-parents' family interaction, child care activities, and parenting stress by using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APIM). In this study, the data of 1,662 samples from the 6th year of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were used for analyzing. The major finding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family interaction for both the actor and the partner effects of parents couple showed significantly negative on their child care activities and on their parenting stress. Second, couples' family interaction had a statistically meaningful actor effect and the partner effects of the husband and wife's parenting stress. Third, couples' child care activities had a statistically meaningful actor effect on actor effect and the partner effects of the husband and wife's parenting stress. In the concluding chapter, the researchers discussed on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ith regard to couples' family interaction, young children care activities, and their parenting stress, and proposed several suggestions derived from the results of the study and the precedent studies.

Key words: Family Interaction, Child Care Activities, Parenting Stress, Actor Effect, Partner Effect

* First author, Professo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